

조계종 올해 수계산림 일정 확정

계단위, 45차 회의서 결정

조계종의 2016년 수계산림 일정이 정해졌다. 조계종 계단위원회(위원장 성우)는 구립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5차 회의를 열고 불기 2560(2016)년도 수계산림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0·51기 사미·사미니계 수계식 봉행의 건 △제36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봉행의 건 △제24회 단일계단 식차마나니계 수계산림은 4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3박4일간 수원 봉녕사에서 진행되며, 수계식은 4월 18일 봉행된다. 이밖에 도 단일계단 개설 36주년을 맞아 단일계단의 역사를 정리하고 조명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형식을 기록영상을 제작하기로 했다. 한편 계단위원회는 회의에서 앞서 임기 만료 된 10명의 계단위원 스님 전원을 재위촉했다. 계단위원 스님들의 임기는 구립 23일부터 2년간이다.

제51기 수계교육은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직지사에서 진행되며, 보살계 수계식은 9월 5일, 사미·사미니계 수계식은 9월 6일 봉행된다. 또 제36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은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8박9일간 제14구부사 범어사에서 진행되며, 수계식은 4월 8일 봉행될 예정이다. 제24회 단일계단 식차마나니계 수계산림은 4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3박4일간 수원 봉녕사에서 진행되며, 수계식은 4월 18일 봉행된다. 이밖에 도 단일계단 개설 36주년을 맞아 단일계단의 역사를 정리하고 조명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형식을 기록영상을 제작하기로 했다. 한편 계단위원회는 회의에서 앞서 임기 만료 된 10명의 계단위원 스님 전원을 재위촉했다. 계단위원 스님들의 임기는 구립 23일부터 2년간이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승단 내 소득 양극화 해결이 승려복지”

이혜숙 교수, <불교평론>서 조계종 승려복지제도 비판

2011년 도입된 조계종 승려복지제도가 5년 차에 접어들어 가운데 미진한 시행에 대한 학계의 날선 비판이 나와 이목을 끈다. 이혜숙 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사진)는 계간 <불교평론> 64집에서 논단 ‘승려복지, 재가자의 할 일’을 통해 승려복지회 운영을 비판하고 사찰의 투명한 운영과 승단 내 소득 배분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이번 논단에서 승려복지제도의 시행이 더딘 까닭으로 승단 내 소득편차와 함께 이에 대한 종단의 개선의지가 없는 것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14년 조계종 측 분한신고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스님 중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이 수입도 월평균 50만원 이하가 43%였다”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스님도 전체 스님 중 20%나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종단 내에 이런 편차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1만여 스님과 3000여 공찰을 지닌 조계종단에서 소득편차 규명 노력에 없고, 또 승가 내에서 조차

승려복지회 한계점 지적

“건강보험 보충역할만...”

개별사찰 기금 마련 제안

사찰 재정현황 공개도 촉구

보장하려는 노력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종단개혁 20주년 세미나에서 ‘사찰이 소수 스님들에 의해 사유화 되고 있으며 전체 승가의 기본 후생복지와 전법교회화활동에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예산 30%만 보고된다’는 현승 스님의 발표도 있었다. 불공정한 분배 상황에서 승려복지가 실현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렇기에 이 교수는 승려복지에 앞서 투명한 사찰운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종단의 재정현황 탓인 것처럼 미뤄지고 있으나, 사실은 투명하지 못한 사찰의 재정운영 문제가 더욱 크다. 대부분



조계종 공찰에서 운영위가 정상가동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런 문제로 인해 현행 승려복지회도 보조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현재 승려복지회는 수행생활 기초보장의 성격이 아니다. 장기 요양보험을 포함한 국가 건강보험에 대한 보충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승려복지회 의료비 지원조차 건강보험에 가입한 스님이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중 일부 항목에만 하고 있다. 최빈층으로 전락한 스님들이 고통을 지

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교구 분할사별로 승려복지회의 업무 전담자가 충치지 않은 점과 함께 최소한 고정소득 대책과 승려 노후 주거안정 대책이 정책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사찰에서 수행보장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먼저 사찰의 거주하는 모든 스님들의 명부를 작성해 전입 전출 관리를 정확히 해야 한다. 이 대중을 주지스님의 동거인으로 등록해 소임자의 수입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 해 전체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또 5년 간 전체적으로 사찰 불사를 간축하고 자산 공개, 승려복지에 전폭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끝으로 “누군가는 아파도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못할 때 다른 누군가는 호사스러움을 누리는 것이 현재 승가 형국”이라며 “조계종 사찰이 역대로 물려받은 자산이 많지만 이는 사부대중의 정제로 공평무사하게 사용해야 할 공유자산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될 때 승려복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환 기자 noduc@hyunbul.com

“선학원 이사회, 분원장 대변하라”

분원장모임, 구립 18일 기자회견...전국회의 개최 요구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은 구립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선학원 일부 분원장들이 재단 이사회의 독단적인 행보를 지적하며 전국 분원장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상임대표 범상)은 구립 18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분원장회의 개최와 지역별 임원 정수 할당을 통한 이사 후보 추천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상임대표 범상 스님을 비롯해 운영위원 등 12명의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분원장 스님들은 “선학원 이사회가 종단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탈종단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사회의 독단이 아닌 전체 분원장 스님들의 뜻을 모아 종단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선학원 이사회의 독단적인 결정과 이사회 운영으로 분원장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국 분원장회의 개최를 이사회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상임대표 범상 스님은 “선학원 이사회는 분원장 스님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일종의 대의기구”라며 “분원장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구가 아닌 분원장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님들은 △창건준 권한을 재가자에게 위임한 점 △소송비용 청구 및 행정편의 중단 등 분원장 스님 위협 △선학원 감사 중 1인의 비독신 의혹 △선학원이 불교닷컴 배상금을 납부했다는 의혹 △이사회를 통한 업무처리료 분원장 스님들의 고충 발생 등 5개 항에 대해 이사회의 해명을 요구했다.

신성민 기자

아픈 역사 흔적... 일본군위안부역사관 재개관

구립 23일 전시공간 확충 '오키나와展'도 추가 개최

성노예 등 일본군의 전쟁 범죄를 기록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했다.

경기 광주 나눔의집(이사장 율주)은 구립 23일 광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재개관식을 개최했다.

1998년 첫 문을 연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일본 제국주의 폐해를 고발하고,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권테마박물관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재개관한 역사관은 기존 2층 자료실 공간을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하며, 총 전시공간을 104평서 120평으로 확대했다.

또한 한글로만 표시되던 전시 내용을 영어·일본어 등 3개국어로 표시함으로써 외국인 방문객들의 편의를 고려했다. 이밖에 4개월 자동온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설복지 면의 확충도 꾀했다.

특히 일본 침략전쟁 중 오키나와 전쟁과 그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 배봉기 할머니의 역사를 소개하는 ‘오키나와 전(展)’을 새롭게 추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



구립 23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역사관에서 참석 내빈들이 재개관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이날 개관식에는 박옥선·이옥선·강일출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해 권용현 여성가족부차관, 조영동광주시장, 탤런트 박재민 등 내빈 50여 명이 참석했다.

나눔의집 원장 율주 스님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위안부 피해 문제를 알릴 수 있는 역사적 장소이자 평화와 여성인권교육

의 중심”이라면서 “고난의 역사를 기록·교육함으로써 인권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인 일본에 대한 문제 해결 촉구는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및 정의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한다(월요일 휴관).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제9회 영문자타카 암송대회 실시

자타카(Jataka, 부처님 전생담)를 영어로 발표하는 ‘어린이 영문자타카 암송대회’가 올해도 찾아온다. ‘영문자타카 암송대회’는 청소년들의 영어실력을 향상하는 한편, 부처님 전생 학습을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신의규)는 ‘제9회 어린이 영문자타카 암송대회’를 실시한다.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1월 9일 예선, 16일 본선 경연대회를 각각 치를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말하기 능력 △발표 능력 △스폰텐즈 이해도 등 3항목으로 각 100점씩 총 300점 만점으로 채점된다. 상품은 미니 아이패드부터 문화상품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마련됐다.

암송 원고는 A타입(초1~4년 대상)과 B타입(초5~중3)으로 나뉜다. 참가 희망 학생은 연령에 맞는 원고를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IDIA)서 다운로드한 후 신청하면 된다. 단, 영어가 모국어인 어린이 혹은 청소년은 참가할 수 없다. 신의규 국제포교사회장은 “국제화 시대에 맞는 영어실력과 더불어 삶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중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총정대행 석도선

승정원장 석벽봉	고문 석암도	원로원장 석법령	총회의장 석혜령
원로위원 석종인 원로위원 석해암	원로위원 석지암 원로위원 석화담	원로위원 석대원 원로위원 석일우	원로위원 석일장 원로위원 석석천
호법원장 석대원 기획원장 석일두 문화원장 석도병	의전원장 석의담 총무원장 석도선 사정원장 석법혜	교육원장 석남산 비구니회장 석혜담	포교원장 석보광 연수원장 석대공
법인이사 석체법	석일두 석성만 석성우 석경만 석현공 석청우 석문공		
강원중앙총무원장 석청강 충원중앙총무원장 석성만 김천중앙총무원장 석경만 진북중앙총무원장 석덕진 안산중앙총무원장 석현공 전남중앙총무원장 석청우	영덕중앙총무원장 석지공 성주중앙총무원장 석홍재 충북중앙총무원장 석선학 광주중앙총무원장 석아도 계주중앙총무원장 석의공 풍기중앙총무원장 석일현	예천중앙총무원장 석명허 경기중앙총무원장 석재현 포항중앙총무원장 석체법 충남중앙총무원장 석문공 인천중앙총무원장 석지일 칠곡중앙총무원장 석혜천	
총무부장 석도홍 포교부장 석도명 의전부장 석성담	교육부장 석정허 교무부장 석보현 중앙포교부장 석효성	사회부장 석청암 비구니부장 석용정	호법부장 석성보 문화부장 석도용
문화국장 석민경 사회국장 석원각 의료봉사국장 석성진	사서국장 석성덕 총무국장 석보각 포교국장 석성우	사서특보 석성만 연수국장 석함월	기획국장 석성각 비구니국장 석지현

이사장·총무원장 석도선

■ 독립미래로봉사회

회장 학산(이종길)
부회장 진불심(이순신)
총무 대각심(김경숙)
임원 혜명심(박현숙)
임원 원명화(윤영아)

종립예술원 원장 묘각(이재인)

■ 총무원포교국장

포교국장 석지명
포교국장 석법성
포교국장 석성운
포교국장 석해공
포교국장 석태허

종립예술원 부원장 보연화(유희연)

■ 법사승단임원

경남원장 도혜
충남원장 보인
포항원장 명성
대전부장 정민
전남부장 혜명
재무부장 자운

대구국장 혜련
충무국장 혜명
부산국장 해성
울산국장 상학
구미국장 혜진
포교국장 청운

■ 각 총무원 국장

사업국장 석민허
복지국장 석용운
관리국장 석지도
규정국장 석성공
총무국장 석원경

연극국장 석경담
의식국장 석운담
조직국장 석건성
사정국장 석도운
의전국장 석운경

역경국장 석정허
교화국장 석지허
조사국장 석담월
감찰국장 석성도

홍보국장 석동운
지도국장 석청도
호계국장 석원호
재무국장 석도담

■ 총 본 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 총 무 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31)963-1688